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graphy in Korea

이 란 주(Lan-Ju Lee)* · 임 지 혜(Ji-Hea Lim)**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
| 1.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3.3 학술지의 종류 및 주제별 구분 |
| 1.2 연구방법 및 연구 제한점 | 3.4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
| 2. 이론적 배경 | 3.5 인용저자 사항 |
| 3. 인용 분석 | 3.6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논의 |
| 3.1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 사항 | 4. 결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새 천년과 함께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최근자료인 2000년과 2001년도에 서지학회에서 발간한 「書誌學研究」 19·20·21·22집에 게재된 51편의 논문과 그 논문에서 인용한 1,321개의 인용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는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저자 사항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이전의 관련 연구들과 크게 두드러진 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많이 다루어진 주제 분야, 인용문헌 수, 인용된 문헌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서지학의 인문학적인 성격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학의 발전을 위하여 역사학 분야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인용분석 방법론 외에도 질적인 연구방법론도 병행되기를 제안한다. 또한 서지학 외의 문헌정보학 분야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서지학, 연구동향, 인용분석, 핵심학술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graphy' in Korea. By utilizing citation analysis methods, total 1,321 cited references of the 51 articles published b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in 2000 and 2001 are analyzed. This analysis is focused on an article's subjects and authors' occupations, the numbers and journal categories of its cited references. Also, this study observes the nationalities and languages of cited references and various items related to authors of cited references.

The most of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it could find that there are minor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s, in respect to subject areas, the number of cited references and the forms of cited refere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bibliographers's collaborative works with related fields such as histor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ed to be strengthened, and that qualitative approaches as well as citation analysis methods might be beneficial for further expansion of academic scope of 'bibliography'.

Key Words : Bibliography, Research trends, Citation analysis, Core journals

*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문헌정보전공 부교수(lanju@dongduk.ac.kr)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coolmeke@hanmail.net)

· 접수일 : 2002. 2. 20 · 최초심사일 : 2002. 3. 12 · 최종심사일 : 2002. 3. 19

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서지학은 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는 학문으로 책의 문자, 내용, 형태, 생산, 유통 및 그것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기술, 분석, 비평하며 영역에 따라 원문서지학, 체계서지학, 형태서지학으로 구분된다. 초기의 서지학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인쇄문화의 규명과 고문헌을 통한 한국학 연구의 방편으로 조사연구 되었지만, 도서관학의 도입으로 도서관 구성요소인 책의 이해를 위한 분과학으로 정립됨으로써 크게 변모, 발전되었다. 그러나 근래 문헌정보학 내에서의 서지학은 그 가치와 위상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많다(김상호 1992). 다시 말하면, 고문헌의 언어적 제약과 인문학으로 제한된 연구영역 때문에 디지털정보화를 지향하는 현대 도서관 환경에서의 서지학의 위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관련지어 한국의 서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도서관학·정보학과 공통의 영역을 구축·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및 공동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강순애 1997).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서지학에서도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지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용분석연구를 이용하여 서지학의 연구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인용연구는 한 저작에서 인용된 문헌은 저작을 읽는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저작 내용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제시해 주며, 동시에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공식적 정보유통시스템(the formal 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서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같이 이전의 연구와 나중의 연구 사이의 관계는 나중의 연구자가 그의 연구에 이전의 연구를 인용함으로써 맺어진다. 환원하면, 학문의 성장은 후속연구의 선임연구 인용으로 계속되는 것이다(이관주 1995).

한편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지식기반사회로 이어지면서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 천년 이후 서지학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 관련 연구저작의 인용활동의 특징적인 면을 조사하여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문헌정보학관련 연구들과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서지학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던 강순애 연구(1997)가 얻은 수치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거에 이루어졌던 인용연구와 현재 분석한 연구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서지학 연구 분야의 현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 제한점

서지학회에서 발간하는 「書誌學研究」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1-12집) 연간이었으나, 1997년(13집)부터는 반 연간으로 간행되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자료인 2000, 2001년도에 발간된 서지학회지, 「書誌學研究」 19·20·21·22집에 게재된 51편(19집 14편, 20집 13편, 21집 9편, 22집 15편)의 논문과 그 논문들에서 인용한 1,321개의 인용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변수는 크게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와 주제별 구분,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저자 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지학은 문헌정보학 내에서 다른 분야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서지학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문헌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자주 인용되는 학술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고문헌의 성격은 어떠한가? 인용된 저자의 성격은 어떠한가? 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용분석연구는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되는 문헌 사이에 주제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자가 어떤 동기에서 이전의 연구를 인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논문의 저자들이 쓴 인용사항만을 토대로 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인용분석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역시 갖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서지학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정보학 분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왔다. 김상호(1992)는 서지학이 문헌정보학 내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지학의 연구성과와 연구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서지학 연구의 중심이 되는 서지학회의 구성과 활동, 연구성과, 연구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지학 분야의 연구활동은 30여 년 동안 한국학 연구에 기본이 되는 고전 자료 및 전적문화재, 고인쇄문화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의 유형은 점차 한국학 분야의 중진학자에서,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을 체험한 도서관학자, 현재에는 학부 때부터 서지학 교육을 받은 연구자들로 바뀌었다. 박사학위논문은 1978년이래 14편이 발표되었는데 주제가 모두 고문헌 및 인쇄문화에 관한 것으로, 도서관학 관계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앞으로 서지학은 고문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며, 동시에 체계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3권 제 1호)

서지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학자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대 문헌도 주제별, 유형별로 조사하여 체계를 세우고, 외국문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한 서지학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문헌정보의 효율적인 접근과 제공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한국의 고전 및 전적 문화재,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조사연구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들에 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재옥(1993)은 인용분석연구를 통해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의 구조적 특성이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도서관학」 1집(1970)부터 19집(1990) 사이에 실린 논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선정논문의 인용문헌 1083개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인용문헌 수를 분석하였고, 인용문헌의 형태, 언어, 나이, 주제, 핵심저널, 핵심저자를 변수로 두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주제 부분에서 65%가 전통적인 도서관 분야로 나타났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연구와 문헌연구(75.7%)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논문 1편 당 인용한 문헌의 수는 평균 29.3개의 문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문헌의 형태로는 단행본이 510개로 47.1%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감소한 반면, 저널인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언어는 영어가 56.7%로 인용 의존도가 높았으며, 나이는 80년대 이후 문헌이 425개(39.2%)로 인용문헌들의 노화가 다른 주제에 비해 비교적 느린 편으로 나타났다. 주제는 도서관학이 818개(75.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핵심저널로는 기술관리, 도서관학, 국회도서관보 등의 잡지, 핵심저자는 국내 저자가 총 246명, 외국저자(중국과 일본을 제외)는 478명이었다.

정연경(1994a)은 분류체계 연구의 확산에 관심을 갖는 사서와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발행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Literature*라는 분류학 관련 색인지를 선정하여 인용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의 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수명, 공동연구, 참고문헌의 유무와 그 수에 관련한 분류체계 문헌의 성격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잡지를 많이 선호하였으며, 주제는 문헌정보학, 언어는 영어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각 나라의 발행국의 인용된 순서는 미국, 러시아, 독일로 나타났다. 수명은 83.2%가 20년 이하의 자료였으며, 전체의 20%정도가 공동연구를 하였다. 전체 문헌 1134개 중에서 495개의 문헌만이 참고 문헌을 갖고 있으므로 낮은 학술수준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연경(1994b)은 주제문헌 분석을 통해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문헌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Library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Humanities Index*, *Social Index*, *General Science Index*와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로부터 1970년대 이후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분야의 문헌의 형태, 주제, 수명, 언어, 공동연구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문과학은 문헌 형태에서 서류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분야의 의존도는 낮은 편이었다. 언어는 폭 넓은 언어 이용

상황을 보였으며 오래된 문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과학은 잡지, 도서의 인용이 많았지만, 타 분야의 문헌 의존도는 매우 낮았다. 영어자료를 선호하였으며, 과거 문헌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셋째, 자연과학에서는 잡지 인용이 가장 많았고,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타 문헌의 의존도가 높았으며, 최신의 자료를 선호하였고, 영어자료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공동실험을 선호하였다.

정진식(1994)은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에 관심을 두고 분석대상으로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를 각각 선택하여 인용된 문헌 전체를 자료 형태별, 생산국별로 분석하고, 인용문헌의 반감기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자료 형태 부분에서는 단행본의 인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문헌의 생산국은 미국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감기 측정에서는 국내 자료에 비해 외국 자료의 수명이 약 3배 이상 길게 분석되어, 연구자들이 국내 문헌보다는 외국문헌을 장기간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해영(1995)은 한국의 전기·전자공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분석연구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정보 정책 수립과 검토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약 70%가 본인의 출판물을 인용한 자인용(self-citation)을 하였으며, 영어 문헌에 대한 의존도는 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인용된 문헌의 출판년한 중앙치는 6년, 평균치는 8.1년으로 나타났다. 13개의 학술지와 학회 발표 논문집이 전체 인용의 3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소속의 저자들이 월등히 많은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최은주(1995)는 정보시스템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활한 정보유통과 이용자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사회과학영역에 속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변수로 인구학적 특성, 정보이용, 학술활동, 정보서비스기관의 이용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층은 30대(50%), 연구경력은 6-10년(30.8%), 최종학위는 석사(33.6%), 신분은 연구원(95.3%)이 가장 많았다. 자료는 연속간행물, 단행본, 신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순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5년 이내 출판된 자료 이용률이 95.2%로 자료의 최신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순애(1997)는 문헌정보학 내에서의 서지학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서지학회에서 발행하는 「書誌學研究」 1-12집(1986-1996)에 실린 122건의 논문을 바탕으로 계량 서지학적인 접근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지학 연구 분야 저자들의 유형과 소속기관, 자료별, 언어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제 구분을 위해서 주제영역을 8개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여 34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독자적인 연구를 하며, 대부분 대학/전문가 그룹에 속하였다. 주제영역에서는 판본학과 목록학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새로운 이론체계 및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문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인용횟수는 한편당 평균 88.27회였으며, 인용문헌은 대부분이 동양권에 치우쳐 있었다.

배순자(2001)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간에 나타나는 연구수행의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학문적 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에서 5년 간 발표된 논문 334편을 채택하였다. 논문의 저자관련사항과 인용문헌에서는 행정학 연구자들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용 참고자료의 유형과 활용순위, 핵심 학술지의 활용도 순위, 학술자료의 반감기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독연구(77.5%)와 연구직에 종사하는 교수(76.35%)가 가장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8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수여 받은 경우가 국내 수여자보다 16%정도 많았다. 논문 한 편을 준비하면서 평균 31건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며 학술지(43.3%)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참고자료는 영어권자료에 집중되었으며, 참고자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술지는 국내는 「한국행정학보」, 해외 학술지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이었다. 반감기 조사 결과 국외 문헌의 반감기는 10.10년, 국내 반감기는 3.29년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정진식(2001)의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며,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추세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를 선정하여 5년 동안(1996-2000) 학회지에 수록된 339편의 논문과 이 논문들이 인용한 8,371건을 인용문헌의 형태별, 언어별로 분석하였고 이 가운데 학술지를 별도로 뽑은, 계량서지학적 접근 방법을 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용문헌의 언어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어권 문헌은 1996년에서부터 1999년까지는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어 문헌은 횡수가 매년 감소하다가 2000년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구자들은 정기간행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학회지의 활용도가 높았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영역은 정보학 분야의 정보검색과 검색 시스템 평가측정, OPAC, 웹 자원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학문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문헌정보학의 자기인용이 가장 높고, 정보학, 전산학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술잡지는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JASIS)*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IPM)*,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RL)*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 분석에 의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사한 것은 저자소속 집단, 인용문헌의 언어, 문헌의 발행국, 인용문헌의 형태였다. 서지학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문 영역들은 외국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 소속집단의 경우, 모두 대학/전문 그룹이었다. 또한 인용문헌의 언어는 대부분이 영어였으며, 발행국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용문헌의 형태는 단행본이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분야별로 나누면, 서지학, 문헌정보학, 인문·사회·자연 과학 분야, 공학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서지학에서는 김상호(1992), 강순애(1997)가 공통적으로 서지학 연구의 논문 주제, 저자집단을 공통적으로 조사하

였지만, 특별하게 다른 영역과 차이를 보인 것은 언어, 문헌의 나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지학의 학문적 특성상 국내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 연구되어지고, 인용 문헌 또한 고문서가 많으므로 나이 분석이 다른 분야에 비해 의미가 없으므로 측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김상호는 서지학회 활동, 강순애(1997)는 각 논문의 인용 문헌 수의 평균(1편당 68.27회)을 제시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유재옥(1993), 정연경(1994a), 정진식(2001)의 논문이 있다. 이 세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형태와 언어 변수를 분석하였다. 유재옥과 정연경(1994a)은 문헌의 나이, 정연경(1994a)과 정진식(2001)은 타학문과의 의존여부를 조사하였다. 유재옥(1993)은 연구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저자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 조사한 점이 특이하며, 정연경(1994a)은 언어와 발행국을 각각 연구하여 더욱 자세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진식은 문헌정보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주제와 인지도가 높은 학술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는 정진식(1994), 배순자(2001), 최은주(1995), 정연경(1994b)의 연구로서, 정진식은 학술지를 이용하여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조사하였고, 배순자는 「한국행정학보」를, 최은주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회과학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전제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논문의 공통변수는 인용문헌의 언어에 대하여 조사한 점인데, 공통적으로 국내 자료보다는 영어권자료인 국외자료 이용에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정진식은 문헌의 형태와 나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최은주는 인구학적인 특징(나이, 경력)을 제시하였고, 학술모임의 참가여부 또한 같이 조사하였다. 배순자는 인용 건수와 나이, 공동연구여부, 학력, 집단 외에도 국내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널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후학들의 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정연경(1994b)은 외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인문, 사회, 자연분야를 주제로 하고, 이들 각각의 주제선정, 형태, 언어, 공동연구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해영(1995)은 공학분야를 연구하였는데, 인용형태, 언어, 연구집단 외에도 인용부분에 있어서 자인용이 대부분(70%)이라는 것과 일본문헌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결과로 제시하였다(표1, 표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분야마다 연구 경향과 분석은 모두 다르게 평가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분야는 서지학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로는 김상호(1992), 강순애(1997)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김상호의 경우 강순애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역사적인 가치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의 방향과 다르다고 본다. 반면, 강순애의 연구는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를 두고 선정한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서지학의 문헌정보학 내에서 혹은 다른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서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주로 어떤 것인지, 서지학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문헌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참고문헌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함께 찾고자 한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3권 제 1호)

<표 1> 선행연구 분석

저자	연구영역	분석범위	분석변수	분석 결과
김상호 (1992)	서지학	서지학의 역사 (1961~1991.2)	서지학회의 구성과 활동 연구성과	1985.10월 서지학회 창립, 교수중심, 석사학위이상 고전자료, 전적 문화재, 고인쇄문화 집중 (150편) 서지학 학위 논문 수 증가
유재욱 (1993)	도서관학	1970(1)-90(19) 「도서관학」 무작위로 37편 선택, 1,083 인용문헌 분석	논문 : 주제, 연구방법, 인용수 인용문헌 : 형태별, 언어 별, 나이분석, 주제분석, 핵심 저널, 핵심저자	논문-도서관 분야 /문헌연구(75.7%)/1,083개(평균 29.3개) 인용문헌-단행본(47.1%)/영어(56.7%)/80년대 이후 문헌 이 425개(39.2%) 느림/도서관학(75.5%)/잡지/ 국내(246), 외국(중국, 일본 제외) (478)
정진식 (1994)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3개학회지(1993) 논문131편, 인용된 4,188문헌	형태별 / 생산국 / 나이분석	단행본/미국 /국내에 비해 외국의 수명이 약 3배 이상 길게 분석
정연경 (1994 a)	문헌정보학	IC의 CL 국제현행 주해서지 (1981-1990)	문헌형태, 주제, 언어, 발행국, 수명, 저자소속기관, 공동연구, 참고문헌 수	도시형태/타학문의 의존도가 낮음/영어/미, 러, 독 /5년 이하/미국/개인
정연경 (1994 b)	인문, 사회, 자연	외국연구의 통계 (LISA)1970이후	형태, 주제, 언어, 공동연구	자연과학-잡지류/인문과학-도서류/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가 크다.
최은주 (1995)	사회과학	(1995.7.1-7.15) 국내사회과학분야연구 자 150명을 임의로 표본	연령, 연구경력, 학위, 신분/ 형태별, 자료수명, 외국자료 의존도/학술활동	30대(50%)/6-10년(30.8%)/석사(33.6%)연구원 /연속간행물/최신성(5년이하 95.2%) /의존도(65.4%)/가끔 출석(49.5%)
이해영 (1995)	공학	(본인의)연구 국내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인용분석	문헌국적, 언어, 나이분석, 저자소속기관, 형태, 국가, 주제분야	자인용(70%)/영어(84%)/중앙치6년, 평균치는 8.1년/ 학술잡지(63.2%)/일본문헌 이용 저조/대학소속
강순애 (1997)	서지학	서지학 연구 1-12(1986-1996)에 실린 122건의 기사	소스 : 저자, 주제관련 사항/ 인용 : 인용페턴과 주제 의존도	소스: 단일저자(99.2%), 대학/전문 그룹, 판본학과 목록학 서지학의 인문과학적인 특성이 부각. 인용: 횡수 1편당 평균 68.27회 /1986-1990: 사부, 자부, 김부, 집부 /1991-1996: 사부, 자부, 김부, 경부/단행본
배순자 (2001)	행정학	「한국행정학보」(1995 봄호-99겨울호)의 334편 논문/인용문헌조사에서 는 오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1편 제외 333편 연구	원논문, 저자(연구수행, 주제 별유형) / 인용문헌(학술커 뮤니케이션관련(연구용참 고문헌유형과활동순위, 학 술자료의 반감기분석)	단독연구(77.5%), 교수(76.35%), 박사학위(83%), 평균 31건의 참고자료(학술지 43.3%/단행본 38.6%) /영어, 핵심저널 「한국행정학보」,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국외문헌 반감기 10.10년, 국외 반감기 3.29년
정진식 (2001)	문헌정보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1999-2000)339편 논문과 인용문헌8,371	언어, 문헌유형, 주제, 타학문 과의 의존도, 인지도 높은 학술잡지	영어강소, 한국어문헌증가추세/정기간행물/정보검색, 검색 시스템평가측정/문헌정보학의 자기인용높음/JASIS, 한국문 헌정보관리학회지 등

<표 2> 선행연구의 분석 변수

	논문주제	핵심주제	인용수	형태	언어	나이	공동연구	학력	집단	기타
김상호 1992	서지학	고문서	-	-	-	-	-	석사	교수	서지학회 활동
유재욱 1993	도서관학	도서관분야	1,083 1편당 29.3개	단행본	영어	노년	-	-	-	핵심저자, 핵심저널 국내(246), 국외(478)
정진식 1994	사회과학	-	-	단행본	미국	길다	-	-	-	-
정연경 1994a	도서관학	-	-	도서형태	영어	5년 이하	개인	-	-	-
정연경 1994b	외국 통계	·	-	·	·	-	·	-	-	-
최은주 1995	사회 과학	·	-	·	·	-	·	-	-	학술모임참가여부, 저자의 연령, 신분, 경력
이혜영 1995	공학	-	-	학술잡지	영어	중앙치 6년 평균치 8.1년	-	-	교수	일본문헌의 이용이 저조하다 자인용이 대부분.
강순애 1997	서지학	판본학, 목록학	68.27회 (1편당)	단행본	-	-	개인	-	교수	-
배순자 2001	행정학	-	31건	-	영어	국내 10.10년 국외 3.29년	개인	박사	교수	핵심저널
정진식 2001	문헌 정보학	정보검색, 검색시스템 평가측정	-	정기 산행물	영어감소 / 한국어 증가	-	-	-	-	핵심저널, 타 분야 의존도

° : 연구대상이 두 가지 이상이고,
결과로, 대상과 연구자의 특성으로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서술된 것

3. 인용 분석

3.1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 사항

논문의 주제영역과 저자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4). 서지학 분야에 대한 주제영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조형진(1992)은 중국과 일본의 서지학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서지학을 크게 7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24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강순애(1997)의 연구에서는, 서지학의 주제 분야를 8개로 분류하였으며, 그 다음 다시 34개의 영역으로 나눴다. 본 연구에서는 강순애(1997)의 8개로 나눈 주제 분류표(①서지학일반 및 응용 ②교감학 ③목록

학 ④판본학 ⑤고문서 ⑥고문헌관리 ⑦도서관사 ⑧기타관련연구)를 참고하면서 분석 논문의 초록을 읽고 주제 분류를 판단하였다. 논문의 주제 결정에 있어서 본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주제별로 논문을 나누어 보았을 때, 「書誌學研究」 19집은 14개의 논문 중 판본학(9)이 가장 많았고, 고문헌관리(3), 도서관사와 기타관련연구가 각각 1건씩이었다. 20집의 13개 논문들은 판본학 5건, 고문헌관리와 목록학이 각각 3건, 서지학 일반 및 응용, 도서관사가 각각 1건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1집은 9개의 논문 중에서 판본학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사 2건, 고문서관리와 목록학의 주제를 연구한 것이 각각 1건씩이었다. 22집은 15개의 논문 중에서 판본학 11개, 목록학 2건, 도서관사, 고문헌관리가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書誌學研究」 19집~22집의 51건의 논문 중에서, 판본학은 30건으로 연구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고문헌 관리(8), 목록학(6), 도서관사(5), 기타(1), 서지학일반 및 응용(1)이었으나 고문헌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논문의 저자관련 사항은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급을 조사하였다. 19~22집의 51명의 저자 중에서 중복되는 저자는 18명이었다. 33명의 저자 중에서 소속기관과 직급 항목을 살펴본 결과 사서 2명, 연구원 3명, 강사 3명, 박사과정 1명, 소속기관과 직급이 밝혀지지 않은 저자 1명을 제외한 23명은 모두 교수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소속기관 역시 대부분 대학교였다. 이 항목은 강순애의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써 서지학계의 연구자 층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표 3> 2000년 書誌學研究 19, 20집 : 논문 저자 관련 사항

논문관련사항		저자관련사항		
논문명	논문의 주제영역	저자명	소속기관	직급
중국 고서 장정고	판본학	류부현	대진대	조교수
새로 발견된 내의원 사본 언해두장집요의 연구	판본학	강순애	한성대	부교수
명종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사	김중권	광주대	조교수
한국고활자명에 대한 연구-임란이후 목활자를 중심으로	판본학	윤상기	동의대	부교수
초등학교교사들의 정보교육이용 인식	기타	장혜영	전북대	교수
인조조 4책본 「선원계보기략」 판본고 -판본선별을중심으로	판본학	윤인현	대진대	조교수
한국본 「부모은중경 : 한문」의 판본에 관한 연구	판본학	송일기	전남대	교수
조선시대목판본 「부모은중경」의 변상도판화에 관한 연구	판본학	이태호	전남대	교수
함양박씨 가선 고문헌의 내용과 자료적 특성	고문헌 관리	옥영정	영남대중앙도서관 고서실	사서
「산림경제」의 인용문헌 분석고	고문헌 관리	노기춘	전남대호남문화 연구소	Post-doc. 과정
<해인사 사적> 간본고	판본학	김영선	경북대	강사
고서인출용 목즙의 실험적연구	판본학	조형진	강남대	교수
숙종영조년간의 실록고출에 대한연구	고문헌 관리	배현숙	계명문화대	교수
「무구정광다라니경」의 간행사항 고증에 의한 한국 인쇄문화의 기원연대연구	판본학	김성수	청주대	교수
요본 '무구정광다라니경' 연구	판본학	유부현	대진대	조교수
동원자로 본 태조2년 인경고	고문헌 관리	오용섭	인천전문	부교수
중국현대문헌분류법의 보조표에 관한 연구	목록학	김종진	상명대	교수
「영남책판기」의 서지적 분석	목록학	김치우	경성대	교수
「선원계보기략」 속종46년본 간행과정고	판본학	윤인현	대진대	조교수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서지학일반 및 응용	권희경	대구효성 카톨릭대	교수
조선 정조조 검서관의 역할	도서관사	박현옥	서울시립 박물관	연구원
고려대장경교정별목의 학술적 의의	고문헌관리	강순애	한성대	교수
석가탑 「부구정경」의 다라니에 관한 연구	고문헌 관리	김성수	청주대	교수
고문서 분제기의 목록작성 방향실정에 관한 고찰	목록학	옥영정	영남대중앙도서관 고서실	사서
한국에서 「논어」 수용과 전개	판본학	송정숙	부산대	교수
삼국시대의 지장에 관한 연구	판본학	정신영	광주대	교수
The Earliest Movable Metal Type Printing	판본학	한영아	명지대	교수

<표 4> 2001년 書誌學研究 21, 22집 : 논문 저자 관련 사항

논문관련사항		저자관련사항		
논문명	논문의 주제영역	저자명	소속기관	직급
새로발견된 初槧本<월인석보>권20에 관한 연구	고문헌 관리	강순애	한성대	부교수
「명심보감」의 저자 문제	판본학	김동환	충부대	조교수
조선시대 행실도 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	판본학	송일기 이태호	전남대	교수
宣祖朝의 賜暇 독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사	김중권	광주대	조교수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서체의 연원	판본학	김수천	원광대	교수
「金泥石屑」千佛銅牌에 관한 연구	판본학	한미경	경기대	강사
일제시대 저작권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도서관사	방효순	한성대	강사
문헌의 발견과 도가	목록학	김덕삼	연구소	박사과정
上海圖書館藏 清 劉喜海의 海東金石苑 정고본 《海東金石苑》	판본학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
『東京雜記』 書籍條의 書誌의 分析	판본학	김치우	경성대	교수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판본학	배현숙	계명 문화대	교수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판본학	강순애	한성대	부교수
문헌의 형태에 관한 비평기사 분석	판본학	김상호	대구대	교수
19세기 『天文關係書籍』의 書誌的 分析	판본학	이노국	대림대	조교수
『嚴氏忠義錄』의 간행경위	판본학	오용섭	인천 전문대	조교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연구	목록학	송일기	전남대	교수
『中國圖書館分類法』의 분류 기호에 관한 연구	목록학	김중천	상명대	교수
光海君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연구	도서관사	김중권	광주대	조교수
逸失 의학문헌 「윤방」의 문헌적 고찰(續)	고문헌관리	노기춘	전남대호남문화 연구소	연구원
일제시대 천자문 연구	판본학	안미경	성균관대	강사
高麗 醫書 『備豫百要方』의 고증	판본학	안상우	한국한의학 연구소	연구원
소혜왕후 한씨 「內訓」의 판본고	판본학	최연미	-	-
『弘齋全書』와 『尙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關한 研究	판본학	신승운	성균관대	부교수
『培源系譜記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판본학	윤인현	대전대	조교수

3.2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의 유형으로 원문,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신문, 사진, (기념) 논문집, 기타 영역, 8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단행본을 번역서와 원저자의 저술서, 연속간행물을 학술지와 잡지,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시 나누었다(표 5, 6, 7, 8).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졌다. 첫째, 원문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史書를 각 왕의 실록별로 나누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한 권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윤인현(「書誌學研究」 19집)의 참고문헌의 경우 영조실록, 숙종실록, 경종실록 등을 각각 인용한 문헌으로써 기록하였지만, 다른 대부분의 저자들은 인용된 왕조의 실록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다른 인용형태로 인정하고, 참고문헌을 분류한다는 것은 정확한 인용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문 전체를 한 단위로 조사하였다. 둘째, 단행본을 세부분류하였다. 서지학의 학문 특성상 원문 자료가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 서지학자들의 좀더 상세한 인용패턴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문의 번역서와 직접 저자의 저술서(원저자)를 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번역서는 저자가 단순히 원문을 번역한 경우(翻譯)와 원문을 저자가 번역하고 동시에 평가한(評譯) 것, 이 두 부분의 단행본 모두를 포함시켰다. 셋째,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잡지로 나누었다. 학술지는 일반 잡지와는 다르게 여러 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자료들이므로, 잡지와 비교하여 좀 더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어떠한 학술지들이 서지학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넷째, 기타 항목에는 문화재관리국, 족보, 청주고인쇄 박물관의 팜플렛, 세종대왕기념 보고서, 문화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박물관, 예술의 전당, 유네스코 국제학술회의 보고서, <호암미술관> 제출보고서, 비디오자료, 발굴보고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포함시켰다.

「書誌學研究」 19~22집을 분석한 결과, 19집의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문헌을 인용한 횟수는 213회였고, 가장 적게 인용한 횟수는 4회였다. 20집에서는 최고 79회, 최저 4회로 횟수측면에 있어서 논문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21집은 최고 52회 인용, 최저 5회 인용이었으며, 22집은 최고 54회, 최저 5회로 각각 나타났다.

「書誌學研究」 19집의 저자들은 총 426건을 인용하여 평균 30.4건이며, 20집의 저자들은 총 348건을 인용하여 평균 26.8건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 21집은 총 232건의 문헌을 인용하여 평균 25.7건을 인용하였고, 22집에서는 총 315건을 인용하여, 21건이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결국, 「書誌學研究」 19~22집의 저자들이 평균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의 수는 26건이었다. 서지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헌의 형태는 단행본(498), 연속간행물(331), 원문(219), 기타 영역(71), 신문(68), 학위논문(60), (기념)논문집(47), 사진(27)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단행본의 경우는 직접 저자가 쓴 책이 449권으로 번역본(49) 보다 10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은 학술지(180)가 잡지(151)보다 인용 수치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영역 조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것은 비디오자료가 2건, CD-ROM 2건, 마이크로필름 1건이 인용되었다는 점이다. 강순애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지학의 학문 분야에 인용 자료로써, 고서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의 형태들이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이 박사의 것보다 약 2.4배정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지학 관련 연구 자료 중에서 석사학위의 논문이 박사의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었다.

<표 5> 19집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	저자														총계
	유부현	강순애	김중권	윤상기	강혜영	윤인현	송일기	이태호	옥영정	노기춘	김영선	조형진	배현숙	김성수	
원문	-	9	2	3	-	3	-	2	-	-	3	4	1	6	33
단행본	번역서	1	-	-	-	-	-	2	1	1	-	-	-	9	14
	원저자	15	2	1	14	8	-	8	5	2	7	6	-	77	147
연속간행물	학술지	2	1	1	5	-	-	3	1	1	-	7	1	19	41
	잡지	15	1	1	12	4	-	2	6	1	2	5	-	30	79
학위논문	석사	-	-	-	2	2	1	5	2	1	-	-	-	3	16
	박사	-	-	-	-	1	-	-	1	1	-	1	-	3	8
신문	1	-	-	1	-	-	-	-	-	-	-	-	-	21	23
사전	2	-	1	3	-	-	-	-	-	-	-	-	-	3	9
(기념)논문집	1	1	1	2	3	-	-	-	-	-	-	-	-	9	17
기타	-	1	-	1	-	-	-	1	1	-	-	1	1	33	39
총계	37	15	7	43	18	4	15	22	8	6	16	18	4	213	426 평균 30.4

<표 6> 20집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 \ 저자		유부현	오용섭	김종천	김치우	윤인현	권회경	박현욱	강순애	김성수	육영정	송정숙	정선영	현영아	총계
원문		-	10	-	1	8	9	14	10	-	-	6	4	-	62
단행본	번역서	-	1	-	-	1	1	1	1	6	-	2	-	-	13
	원저자	2	2	8	10	-	17	10	8	4	58	12	5	6	142
연속 간행물	학술지	2	4	-	5	-	-	11	16	8	16	1	13	3	79
	잡지	-	-	-	-	-	1	-	4	1	1	-	-	-	7
학위논문	석사	-	-	-	2	-	-	1	-	-	3	1	-	-	7
	박사	-	-	-	3	-	-	-	1	-	-	-	1	-	5
신문		-	-	-	-	-	-	-	-	1	-	1	-	-	2
사전		-	-	-	-	-	-	1	-	-	1	1	-	-	3
(기념)논문집		-	1	-	1	-	-	-	8	-	-	-	3	-	13
기타		-	-	-	1	-	4	1	1	2	-	3	-	3	15
총계		4	18	8	23	9	32	39	49	22	79	27	26	12	348 평균 26.8

<표 7> 21집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 \ 저자		강순애	김동환	송이태 기호	김중권	김수천	한미경	방효순	김덕삼	박현규	총계
원문		3	22	6	7	6	4	-	-	2	50
단행본	번역서	5	-	-	-	1	-	-	1	1	8
	원저자	19	-	8	1	7	7	-	18	11	71
연속 간행물	학술지	8	-	4	5	1	-	1	1	1	21
	잡지	9	-	2	4	3	-	7	-	-	25
학위논문	석사	1	-	-	-	-	-	-	-	-	1
	박사	-	-	-	-	1	-	-	-	-	1
신문		-	-	-	-	-	-	32	-	-	32
사전		2	-	-	-	1	8	-	-	-	11
(기념)논문집		5	-	1	2	1	1	-	2	-	12
기타		-	-	-	-	-	-	-	-	-	-
총계		52	22	21	19	21	20	40	22	15	232 평균 25.7

<표 8> 22집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	저자															총계		
	김치우	배현숙	강순애	김상호	이노국	오용섭	송일기	김종천	김중권	노기춘	안미경	안상우	최연미	신승운	윤인현			
원문	1	2	3	-	19	9	3	-	10	9	7	-	5	4	2	74		
단행본	번역서	-	-	7	-	-	-	-	-	-	-	3	4	-	-	14	103	
	원저자	15	4	7	15	-	8	2	5	2	-	-	26	4	1	-		89
연속간행물	학술지	6	1	11	1	-	-	2	-	6	-	-	3	7	-	2	39	79
	잡지	3	5	15	2	-	-	2	-	5	-	2	5	1	-	-	40	
학위논문	석사	1	1	1	-	-	-	2	-	-	-	-	11	1	-	17	22	
	박사	2	-	-	-	-	-	-	-	-	-	2	-	1	-	5		
신문	-	-	-	-	-	-	-	-	-	-	11	-	-	-	-	11		
사전	-	1	2	-	-	-	-	-	-	-	-	1	-	-	-	4		
(기념)논문집	-	2	2	-	-	-	-	-	-	-	-	1	-	-	-	5		
기타	-	3	6	-	-	-	-	-	-	-	-	7	-	-	1	17		
총계	28	19	54	18	19	17	11	5	23	9	22	46	33	6	5	315 평균 21.0		

3.3 학술지의 종류 및 주제별 구분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잡지 두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서지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학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지학자들 사이에 많이 이용될 것이라는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가설 하에 「書誌學研究」, 「역사학보」, 「규장각」, 「동방학지」, 「도서관」, 「동양학보」 6가지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기타 영역에는 6가지에 속하지 못한 「史林」, 「圖書館學季刊」, 「嶺南學報」, 「조선학보」, 「서림」, 「도서관학보」, 「龜巖學報」, 「사회과학연구」, 「東義논집」, 「비블리오피리」, 「인도학불교연구」, 「진단학보」, 「조선학보」, 「백산학보」, 「한국도서관·정보관리 학회지」, 「한국학보」, 「서동」, 「대구사학」 등의 자료들이 여기에 속한다.

「書誌學研究」 19~22집에서 인용된 학술지 횟수는 모두 180회이다. 기타항목(84)을 제외하고,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학술지는 「書誌學研究」(58)이다. 반면, 문헌정보학과 관련 있는 학술지인, 「도서관」은 10편이 인용되는 등 극히 적은 인용횟수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서지학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분석해볼 때, 문헌정보학안에서 서지학외의 분야와 관련성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지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역사학 관련 학술지인 「역

사학보」, 「규장각」, 「동방학지」, 「동양학보」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비해서 자주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타 항목의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서지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서지학자들은 자신의 주제 방향과 맞닿은 다양한 잡지와 학술지, 그리고 논문집을 연구에 참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서지학자들의 인용방향과 연구방향을 알기 위해서 학술지를 서지학, 문헌정보학(서지학을 제외한 문헌정보학 분야를 뜻한다), 역사, 불교 등 주제별로 구분해 보았다. 조사결과 역사학 분야(61)의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서지학(59), 기타(24), 문헌정보학(18), 한국학(15), 불교(2)의 순서로 나타났다.

3.4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를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발행국과 언어가 다른 서지들이 간혹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지학자들은 어느 나라의 문헌을 이용하며, 자주 인용되는 문헌의 발행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에서 이 항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언어별로 분석한 조사결과, 총 1,321건의 인용문헌 중에서 한국어가 1,045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128건의 중국어, 일본어(54), 영어(25), 기타(독일어 1)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인용문헌의 발행국 조사 결과, 한국(1044), 중국(137), 일본(54), 영어권(15), 기타(3)으로 언어별 분석과 같은 순서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언어와 발행국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書誌學研究」 19집의 류부현의 참고문헌 중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1권 문헌이 발행국은 중국으로 언어와 발행국이 같지 않았으며, 이와 비슷한 경우로 송일기의 참고문헌 중, 일어로 쓰인 문헌 한 권이 한국에서 발행되었다. 또한 조형진의 논문에서는 영어 논문 2개, 그 중 하나가 타이완에서 발행된 것이며, 김성수의 참고문헌 분석 결과, 영어권 문헌이 6개였지만, 그 논문이 한국 UNESCO에서 발행되었으므로 발행국은 한국이 되었다. 「書誌學研究」 20집의 김성수의 논문은 중국어, 일본어 문헌을 한국어로 모두 번역이 된 자료였지만, 그 발행국은 모두 각각의 自國이었으므로 언어와 발행국이 일치하지 않았다. 현영아 논문의 경우, 영어권 자료가 많았으나 대다수가 UNESCO 발표문으로 거의 한국에서 발행된 것이었으며, 기타항목은 타이완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書誌學研究」 21, 22집은 언어와 발행국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지학자들이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동양의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인식을 뒷받침 해주었지만, 영어권의 인용도 차츰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3.5 인용저자 사항

인용저자 사항은 자인용과 타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타인용의 경우 다시 인용된 저자와 그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횟수는 한 가지 문헌이 인용된 횟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쓴 책이나 논문이 2번 이상 인용되었을 경우에만 조사하였다. 자인용을 한 저자는 「書誌學研究」 19집의 10명, 20집 5명, 21집 6명, 22집 15명으로 서지학자들 절반 가량이 자인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인용에 이용한 문헌 횟수는 20집의 김성수가 10번으로 가장 많았고, 한번도 자인용을 하지 않은 저자는 13명이었다. 타인용 항목을 살펴보면, 각 논문에서 2번 이상의 문헌이 인용된 학자들은 52명이었다. 「書誌學研究」 19집의 김성수가 16명의 저서를 2번 이상 인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황수영은 그의 문헌만 총 8번 인용되어 한 논문 속에서 단일 저자로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書誌學研究」 19~22집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는 천혜봉(23)이며, 황수영(12), 김두중(10) 등의 순서로 인용되었다.

3.6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논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10편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인용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나 주제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주제분야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순애(1997)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그는 「書誌學研究」 1-12집(1986-1996)에 실린 122건의 논문을 바탕으로 계량 서지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서지학 연구 분야 저자들의 유형과 소속기관, 자료별, 언어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급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서 서지학계의 연구자의 주요 계층을 알 수 있었다. 공저자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 2000년 「書誌學研究」의 논문들은 모두 단일저자이나, 2001년의 21집에서는 한 편이 공저자에 의한 논문이었다. 하지만, 강순애와 동일하게 서지학자들은 독자적인 연구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관련 사항에서 주제 영역이 강순애의 연구에서는 판본학, 목록학이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판본학, 고문헌관리, 목록학의 순서로 연구경향이 조금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순애는 주제영역을 좀더 세분화하고, 「書誌學研究」도 1990년을 기준으로 전, 후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인용문헌분석에서는 인용횟수, 유형, 언어를 두 논문 공통적으로 변수로 채택하였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강순애의 연구에서 인용횟수는 한 편당 68.27회, 인용문헌유형은 1990년 전에 단행본, 연속간행물, 목록, 사전, 신문, 보고서의 순서였고, 1990년 후반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목록, 학위논문, 사전, 신문의 순서대로 인용되었다. 언어 부분도 1990년 전반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1990년 후반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문헌 순서대로 인용이 되었다. 또한 상세하게 조사한 주제 부분은 사부, 자부, 집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1년 「書誌學研究」(19~22집)의 인용횟수는 한 편당 26회로 나타나 강순애의 연구 결과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문헌의 종류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기타영역, 신문, 학위논문, 기념논문집, 사전의 순서대로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기타영역에서는 CD-ROM, 마이크로 필름 등을 인용한 연구도 서지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변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순서대로 문헌이 인용되었으며, 발행국을 변수로 함께 조사하였는데, 거의 문헌에 쓰여진 언어와 발행국이 같았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상으로, 강순애의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두 연구에서 공통된 여러 변수들의 값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서지학의 연구영역이 아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고문헌의 유형 중, 기타영역에서도 보였듯이 서지학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이 고서에만 머물지 않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진식(2001)의 연구에서는 1996-2000년 동안 발행된 문헌정보학 관련 두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와 본 연구를 '서지학을 제외한 문헌정보학 분야'와 '서지학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정진식의 연구에서는 영어권 문헌 이용이 1996년에서부터 1999년까지는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어 문헌은 200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새 천년에 들어와 보여진 변화로, 한국어 문헌의 증가 추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터넷과 지식기반사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타 분야의 의존도는 정보학, 전산학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술지는 JASIS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IPM, CRL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도 역시 인터넷과 향상된 과학기술의 영향이라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서지학은 문헌정보학 내의 다른 분야와 학문 관련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학 관련 학술지인 「역사학보」, 「규장각」 등이 자주 인용되었으며, 타 분야 의존도는 역사학 분야가 최우선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지학회에서 발행하는 「書誌學研究」의 전문적인 주제 성격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는 문헌정보학의 한 분과인 서지학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4. 결론

서지학은 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는 학문으로 책의 문자, 내용, 형태, 생산, 유통 및 그것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기술, 분석, 비평하며 영역에 따라 원문서지학, 체계서지학, 형태서지학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고문헌의 언어적 제약과 인문학으로 제한된 연구영역 때문에 디지털정보화를 지향하는 현 도서관 환경에서의 서지학의 위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서지학에서도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 천년과 함께 시작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서지학 연구의 추이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지학 관련 연구저작의 인용활동의 특징적인 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0·2001년도에 발간된 「書誌學研究」 19·20·21·22집에 게재된 51편의 논문과 그 논문에서 인용한 1,321개의 문헌이다. 분석 변수로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와 주제별 구분,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저자 사항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물론 새 천년 이후의 학문적 현상을 밝히는데 사용한 자료의 양이 매우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書誌學研究」 19~22집의 51건의 논문 중에서 판본학(30), 고문헌 관리(8), 목록학(6), 도서관사(5), 기타와 서지학일반 및 응용이 각각 1건의 순서대로 주제영역이 연구되었다.
- 2) 19~22집의 51명의 저자 중에서 중복되는 저자는 18명이었으며, 저자들은 대부분 교수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소속기관은 대학교였다. 이 항목은 강순애의 연구 결과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서, 서지학계의 연구자 층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3) 저자들이 평균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의 수는 2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강순애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약 1/3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 4) 서지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자료 형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문, 기타 영역, 신문, 학위논문, (기념)논문집, 사전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비디오자료, CD-ROM, 마이크로 필름이 인용되었는데, 강순애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지학 분야에서, 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최신의 자료들이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가장 많이 이용된 학술지는 「書誌學研究」였고, 문헌정보학과 관련 있는 학술지는 극히 적게 인용되었다. 학술지를 주제별로 조사해본 결과, 역사학 분야의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서지학, 기타, 문헌정보학, 한국학, 불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 6) 인용문헌 중에서 한국어가 946건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

타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발행국 또한 한국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발행국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7) 서지학자들 절반 가량이 자인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전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크게 두드러진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이 다루어진 주제 분야, 인용문헌 수, 인용된 문헌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좀 더 한국의 서지학 분야의 연구 동향 및 전망을 관찰하기 위하여서는 서지학 연구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역사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용분석 연구방법론 외에도 질적인 연구방법론도 병행되기를 제안한다. 끝으로, 선행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서지학 연구자들과 서지학 외의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지학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한국의 서지학 연구 방향-書誌學研究의 분석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4집 (1997). pp. 1-21.
- 김상호. “한국 서지학 연구동향”, 《書誌學研究》 제8집(1992). pp. 353-362.
- 배순자.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1). pp. 123-142.
- 유재욱.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1993). pp. 145 -167.
- 이관주. “온라인 인용검색의 효과 : 전략, 기법, 공식의 소개”, 《도서관》 제50권, 제4호 (1995). pp. 125-136.
- 이관주, 변자영.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관한 연구 -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2000). pp. 141-156.
- 이해영. “국가 과학기술정보 정책에 대한 인용분석 연구결과의 적용 - 전자·전자공학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집(1995). pp. 109-132.
- 정연경. “분류체계에 관한 인용분석 - 국제서지록 바탕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6집 (1994a). pp. 187-212.

- . “주제 문헌별 특성 : 외국의 인용분석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제49권, 제3호(1994b). pp. 44-62.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 55-78.
- .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 - 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 《정보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1994). pp. 32-48.
- 조형진. “동·서양 서지학의 연구영역 조감”, 《書誌學研究》 제 11집(1995). pp. 167-188.
- 최은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5). pp. 13-38.